



NEWS

|| ▾

우리가 그리는

연합뉴스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알>

Q U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WTA 투어 스비톨리나, 러시아 선수 만나자 기권 선언

송고시간 | 2022-03-01 10:29

김동찬 기자
기자 페이지엘리나 스비톨리나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5위 엘리나 스비톨리나(우크라이나)가 대회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를 만나자 기권을 선언했다.

스비톨리나는 2월 28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막한 WTA 투어 GNP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23만9천477달러)에 톱 시드를 받고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진 추첨 결과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인 아나스타시야 포타포바(81위)를 만나게 되자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월드컵과 US오픈 4강에 올랐던 스비톨리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앞으로도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와는 경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러시아 선수들을 비난하지 않겠다"며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준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비톨리나는 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와 WTA 투어, 국제 테니스연맹(ITF)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IOC는 2월 28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종목별 국제경기단체와 각 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또는 팀을 중립 소속으로만 출전하게 하고, 국가 상징과 국가색, 국기, 국가, 나라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라고 권고했다.

요약? 댓글 0 개

1010회
오늘 방문객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여성 전용 교도소하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 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그러나 러시아 선수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한 ATP와 WTA 투어, ITF에서는 아직 러시아나 벨라루스 선수 및 국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2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ATP 챌린저 대회 모스크바컵이 취소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챌린저 대회는 정규 투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대회다.

이번 멕시코 대회에도 포타포바 외에 러시아 선수 2명이 더 러시아 국적으로 출전하고 있다.

스비톨리나는 앞으로 대회 출전으로 얻은 상금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mailid@yna.co.kr

🔗 관련기사

[우크라 침공] 가족과 생이별에도 코트에 출격 '자매는 용감했다'

[우크라 침공] "러시아를 향한 스포츠 제재, 푸틴에 상당한 타격 줄 수도"

[우크라 침공]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메드베데프 "내가 평화를 바라는 이유"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1 10:29 송고

#WTA #투어 #기권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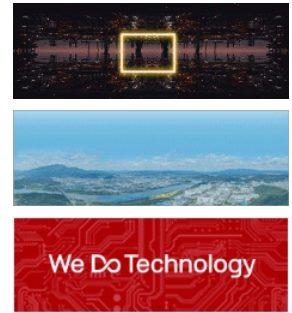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44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6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56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P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